# 구원에 이르는 지식의 요약

"구원에 이르는 지식의 총론"은 어빈의 목사인 학식 있는 데이비드 딕슨 씨와,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제임스 더럼 씨의 공동 작품이었다...

존 하위는 그의 「스코틀랜드 신앙의 사람들의 생애」[레브. W.H. 카슬로 신판, 294쪽, 에든버러: 존스턴, 헌터 앤 코, 1870년]에서 그 기원과 목적을 이렇게 설명한다:

"교회의 이 두 위대한 빛 사이에는 매우 돈독한 우정이 있었으니, 그들의 경건한 대화의 여러 결실들 가운데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의 총론'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의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들과 함께 인쇄되어 왔다. 이는 그 주제에 관한 여러 대화와, 평범한 이해력에도 유익할 수 있는 다루는 방식에 대한 논의 끝에, 딕슨과 더럼 씨가 대략 1650년경 한 존경할 만한 목사에게 구술한 것이며; 비록 교회에 의하여 사법적으로 승인된 적은 없지만, 현재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읽히고 실천될 가치가 있다".

이 논고를 읽은 것이 고 맥체인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을 명확히 이해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일기의 다음 발췌문에서 드러난다: "1834년 3월 11일. — '구원에 이르는 지식의 총론'을 읽음; 이 작품이 내 안에 구원하는 변화를 처음으로 일으켰다고 나는 믿는다. 만일 그 변화가 완전에 이를 수 있다면, 얼마나 기꺼이 그 독서를 다시 하겠는가".

J.H.
에든버러, 1871년 1월 2일

## 구원에 이르는 지식의 총론

구원의 지식에 관한 총론은 다음 네 가지 기초로 나눌 수 있다:
1. 행위 언약의 파기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처한 비참한 상태.
2. 은혜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치유책.
3. 그들을 이 언약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지정된 방편들.
4. 이 방편들을 통하여 택자들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복들. 이 네 가지는 각각 몇 가지 명제로 설명된다.

### *1. 본성적으로 처한 우리의 비참한 상태*

기초 I.

행위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한 우리의 본성적인 비참한 상태. . 오 이스라엘아, 네가 너 자신을 멸망

시켰도다.

I.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나뉘지 않은 동일한 신성 안의 세 구별된 위격, 모든 완전함에 있어 동일하게 무한하신 이가, 시간이 있기 전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극히 지혜롭게, 시간 안에서 일어날 모든 것을 작정하셨으며; 어떤 피조물의 죄에도 참여함이 없이 지극히 거룩하고 오류 없이 자기의 모든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

II. 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무로부터 지으시되 각기 그 종류대로 심히 좋게 지으셨으니: 특별히 모든 천사를 거룩하게 지으셨고, 우리의 첫 부모, 곧 인류의 뿌리인 아담과 하와를,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정직하고 능력 있게 지으셨다. 그 율법은 그들이 죽음의 형벌 아래 본성상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리고 그들의 후손과 언약 혹은 계약을 맺으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섬김에 상 주실 의무가 없으셨으니, 그 언약은 완전한 인격적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주시는 것이며, 나아가 만일 그것을 어긴다면 죽음으로 위협하시는 것이었다. 이것이 행위 언약이다.

III. 천사들과 사람들 모두 자기 자신의 의지의 변화에 노출되어 있었으니, 이는 경험이 증명하는 바이다(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불변하시다는 그 나눌 수 없는 속성을 자신을 위하여 보유하셨다): 이는 많은 천사들이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인하여 그 첫 상태의 죄로 타락하여 마귀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첫 부모는, 뱀의 형상으로 말하는 이 마귀들 중 하나인 사탄에게 이끌려,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행위 언약을 깨뜨렸으니; 그리하여 그들과, 뿌리에 붙은 가지처럼 그들의 허리 안에 있어 그들과 같은 언약에 포함된 그들의 후손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모든 능력도 잃어버렸으며; 참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모든 영적 선에 대한 원수가 되고, 오직 계속하여 악으로만 기울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원죄이니,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 우리의 모든 실제 범죄의 쓰디쓴 뿌리이다.

### *2.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련된 치유책*

기초 II.

은혜 언약을 통하여 택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치유책. . 오 이스라엘아, 네가 너 자신을 멸망시켰으나; 네 도움은 내 안에 있다.

I. 비록 사람이 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도 없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도움받기를 원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 상태에 대하여 무감각한 채 가만히 있다가 마침내 멸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말씀 안에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을 계시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세상의 시작 전 삼위일체의 회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고 합의된 구속 언약의 취지에 따르고 그에 부합하는 것이다.

II. 구속 언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잃어버린 사람들 중 일정한 수를 자유로이 생명으로 택하신 후,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을 성자 하나님, 곧 지정

된 구속주께 넘겨주셨으니, 이는 그가 낮아지사 영혼과 몸을 지닌 인간 본성을 취하여 자기의 신적 본성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시고, 율법에 복종하사 그들을 위한 보증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정의를 만족시키시되, 그들의 이름으로 순종을 다하시어 심지어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고난까지 감당하심으로써, 모든 이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의와 영생을, 그리고 그것으로 이끄는 모든 구원의 은혜를 값 주고 사시어, 그 자신의 지정된 방편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그들 각자에게 실제로 적용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 조건을 하나님의 아들(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받아들이셨고, 때가 찼을 때 세상에 오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율법에 복종하시며, 십자가에서 그 몸값을 온전히 치르셨다: 그러나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맺어진 그 언약에 힘입어,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시대에 걸쳐, 그가 사신 은택들을 계속 택자들에게 적용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무상의 은혜의 언약과 그들과의 화해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신자에게 자기 자신과 그의 모든 복에 대한 권리와 몫을 부여하신다.

III. 이 구속 언약을 이루시고, 택자들을 은혜 언약 안에서 그 은택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삼중 직분을 입으셨다: 선지자가 되심은 그의 백성에게 모든 구원의 지식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도록 설득하시기 위함이며; 제사장이 되심은 자기 자신을 그들 모두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로 드리시고, 아버지 앞에서 계속 중보하사 그들의 인격과 봉사가 그분께 받아들여지게 하시기 위함이며; 왕이 되심은 그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고, 자기 자신이 지정하신 규례로 그들을 먹이시고 다스리시며,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기 위함이다.

### *3. 은혜 언약 안에 마련된 방편들*

기초 III.

택자들을 이 언약에 참여케 하고, 부르심을 받은 다른 모든 이를 핑계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지정된 외적 방편들. .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I. 사람들을 은혜 언약에 참여케 하기 위한 외적 방편과 규례들은 매우 지혜롭게 베풀어져 있어서, 택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회심하고 구원받을 것이며; 그 가운데 있는 유기된 자들은 정당하게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 방편은 특별히 이 네 가지이다. 1. 하나님의 말씀. 2. 성례. 3. 교회 치리. 4. 기도.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에 의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조건으로 모든 죄인에게 은혜를 제시하시니;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시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그의 규례에 복종하는 이들은 자기 자신과 그 자녀들이 은혜 언약의 영예와 특권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실 것이다. 성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한 조건 위에서의 그 거래를 확증하시기 위하여 언약이 인쳐지게 하실 것이다. 교회 치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 보호받고 도움받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약속된 그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날마다 이끌려 나오고, 인정되고, 실행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방편은, 언약 당사자들의 자질에 따라 참된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에 따라, 실제로든 단지 고백으로만이

든 뒤따르게 된다.

II.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에서 세워지고, 그가 오신 이후 신약에서 세워진 은혜 언약은, 외적 시행에 있어서는 다를지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요 동일하다: 이는 구약에서의 언약이 할례와 유월절 어린양의 성례로 인쳐져,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인하여 얻어질 은택들을, 피 흘리는 제사와 여러 의식의 그림자 아래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세례와 성찬의 성례로 인쳐진 언약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과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자기 자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하늘과 땅을 영광스럽게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눈앞에 명백히 제시한다.

### *4. 이 방편들로 전달되는 복들*

기초 IV.

이 방편들로 말미암아 주의 택자들, 곧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복들. .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I. 이 외적 규례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서는 유기된 자들을 핑계할 수 없게 하실 뿐 아니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구속 언약 안에서 택자들을 위하여 사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실제로 적용하시고, 그들의 인격에 변화를 일으키신다. 특별히, 1. 그들을 회심시키거나 중생시키시니, 그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지성을 여시며, 그들의 뜻과 정서와 능력을 새롭게 하사 그의 명령에 영적 순종을 드리게 하신다. 2. 그들에게 구원하는 믿음을 주시니, 마땅히 받을 정죄를 깨달아 마음으로부터 은혜 언약에 동의하고, 거짓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다. 3. 그들에게 회개를 주시니, 경건한 슬픔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여, 모든 불의로부터 하나님을 섬김으로 돌이키게 하신다. 그리고, 4.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니, 믿음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영적 순종 안에서 계속하고 견디게 하사, 모든 의무에 있어 결실함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하신다.

II. 그들의 인격에 있어서의 이 내적 변화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의 신분도 변화시키시니: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는 즉시, 1. 그들을 의롭다 하시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드린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에서 그들의 이름으로 정의에 드린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하심으로 그리하신다. 2. 그들을 화해시키시고,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벗이 되게 하신다. 3. 그들을 양자 삼으시니,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자녀 됨의 모든 영적 특권으로 풍성하게 하신다. 4. 그리고 마침내, 이생에서의 그들의 싸움이 끝나면, 먼저 그들의 죽음에서 그들의 영혼의 거룩함과 복됨을 완성하시고, 그다음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곧 심판을 위하여 오시는 날에 부활 안에서 다시 기쁘게 결합되어 그들의 영혼과 몸 모두의 거룩함과 복됨을 완성하시니, 그때 모든 악인은 자기들이 섬긴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보내질 것이나: 그리스도 자신의 택함받고 구속받은 자들, 참된 신자들, 거룩함을 배우는 자들은 영화의 상태 안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머물 것이다.

# 구원의 지식의 실천적 사용

성경에 담겨 있고, 앞서 말한 신앙고백과 교리문답들 안에 간략히 제시된 것

기독교 교리의 주된 일반적 사용은 사람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확신시키는 것이니, , 부분적으로는 율법 혹은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가 겸비해지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며; 부분적으로는 복음 혹은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없이 믿는 신자가 되어, 견고한 근거와 확증 위에서 자기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선한 열매로 자기 믿음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어 이렇게 구원받게 하려 함이다.

행위 언약, 곧 율법의 요지는 이러하다: "네가 명령받은 모든 것을 행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면 살 것이나; 만일 부족하다면 죽으리라". . .

복음, 곧 은혜와 화해의 언약의 요지는 이러하다: 마땅히 받을 진노로부터 참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그는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이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피하면, 너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

율법, 곧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확신시키기 위하여는, 다른 많은 것들 가운데 다음의 성경들을 사용하라.

### *1. 율법으로 죄를 확신시킴*

I. 율법으로 사람에게 죄를 확신시키기 위하여, 을 숙고하라.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서 주께서는 다음 두 가지를 가르치신다.

1. 하나님을 거스른 우리의 모든 오류와 죄의 근원은 마음에 있으니, 이는 지성과 의지와 정서와 영혼의 모든 능력을 포함하며, 원죄로 인하여 그것들이 부패하고 오염된 대로이다; 지성은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능할 뿐 아니라 오류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의지와 정서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에 완고하게 불순종하며 오직 악한 것으로만 기운다: 마음은(그가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부패하니;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부패하여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으며; 또한 .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오직 악할 뿐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 일과 다른 모든 일에 있어 우리는 그 증언을 신뢰하여야 한다; 또한 경험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결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육신의 이익만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모든 행위의 바퀴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다.

2. 주께서는 우리의 원죄, 곧 그 모든 실제 열매와 더불어 악한 성향을 그의 법정 앞의 심판으로 가져가시니; 이는 그가 마음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사, 각 사람의 행위와 그 행실의 열매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추론하여야 한다:
"하나님과 나의 악한 양심이 증언하는 것을, 나는 그것이 참되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악한 양심은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부패하며, 본성적으로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오직 악할 뿐임을 증언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이 참됨을 확신한다".

이렇게 사람은 율법으로 죄를 확신할 수 있다.

### *2. 율법으로 의를 확신시킴*

II. 율법으로 사람에게 의를 확신시키기 위하여 을 숙고하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으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친다:

1. 우리의 본성적인 죄악됨으로 인하여,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불가능함이 너무나 확실하여, 율법의 행위로 칭의를 구하는 자들은 율법을 어겼기에 하나님의 저주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으니, 라고 그가 말한다.

2. 율법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는, 계명 한둘을 지키거나, (가능하다면) 얼마 동안 어떤 혹은 모든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 이는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 행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3. 어떤 사람도 이 완전함에 이를 수 없으므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저주 아래 있으니, 이는 율법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 행하여 이루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불쾌하심을 포함하며, 만일 은혜가 그 완전한 시행을 막지 않는다면, 이생에서나 죽음 이후에나 영원토록 영혼과 몸에 그의 진노가 점점 더 풀려날 위험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추론하여야 한다:
*"행위 언약에 따라,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저주에 노출된 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거나 의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나는 행위 언약에 따라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저주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거나 의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사람은 의가 자기 자신의 행위나 율법으로 얻어지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다.

### *3. 율법으로 심판을 확신시킴*

III. 율법으로 사람에게 심판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을 숙고하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이니,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꽃 가운데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자로 자신을 제시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불꽃으로 무장하고 오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제시된 은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 교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 혹은 행위 언약 아래 있는 본성 상태에 머무는 모든 자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멸하시리라는 것을 배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추론하여야 한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마지막 날에 행하실 것이라고 내게 경고하신 것을, 나는 그것이 의로운 심판임을 확신한다: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께서는, 만일 내가 때에 맞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의 교리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마지막 날에 그의 얼굴과 그의 영광으로부터 쫓겨나 영혼과 몸이 영원히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내게 경고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이 의로운 심판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나는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도록 나를 미리 경고하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만일 그가 행위 언약 아래 계속 머물거나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율법 혹은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확신할 수 있다.

### *4. 복음으로 죄와 의와 심판을 확신시킴*

IV. 복음으로 사람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확신시킴.

복음, 곧 은혜 언약으로 사람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확신시킴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거나, 그 안에서 제시된 은혜 언약을 거부하는 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다른 모든 죄보다 더 크고 더 위험한 죄라는 것; 이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곧 죄와 진노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을 거부하며,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굴복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2. 그다음, 완전한 죄 사함과 참된 의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어짐을 이해하여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이 조건 아래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늘로부터 증언하시

기 때문이다. 3. 만일 그가 믿음으로 의를 받으면, 심판은 한편으로 신자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과, 그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능력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뒤따를 것이며;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받기를 거부하면, 심판은 다른 한편으로 불신자를 정죄하는 것과, 사탄과 그 종들과 함께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으로 뒤따를 것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의 크기를 보여 주는 데는, 다른 많은 것들 가운데, 이런 성구들이 도움이 된다; 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리심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은혜 언약을 거부하는 죄의 크기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은혜의 정당한 제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라, 사55:1-3.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오라(주께서 말씀하시되);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나니, 등등.

또한, 이 일반적인 제안이 본질적으로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특별한 제안과 다름없음을 생각하라. 사도가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16:3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제안의 이유는 요3:16에 나타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큰 구원이 주 예수 안에서 제시되는 것을 보면서, 그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구하는 자는, 욘2:8에 이른 바와 같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었던 자기 자신의 긍휼을 버리는 것 외에 무엇을 하는 것이겠는가?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 외에 무엇을 하는 것이겠는가? 요일5:10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요일5:11. 그리고 율법을 거스르는 어떤 죄도 이 죄와 같지 아니함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언하시니, 요15: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 죄의 크기를 사람에게 확신시킬 수 있다.

### *5.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의*

사람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의를 확신시키기 위하여, 이 어떠한지 숙고하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그리하여 그들은 멸망하였다) 하니라. 이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 그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모세의 율법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리고 .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만일 사람이 이 의를 영접한다면 심판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요일3:8을 숙고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만일 사람이 이 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의 정죄가 선포되었으니, .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러하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며 믿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추론하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의 크기와, 율법을 거스른 죄들과 그로 인하여 마땅한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에게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택자를 확신시키기에 충분한 것; 그리고 의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곧 그 안에서의 은혜 언약에 동의함으로 얻어짐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에 충분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자기를 믿는 모든 이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실 심판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에 충분한 것은, 나에게도 확신시키기에 충분할 수 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러한 성구와 다른 비슷한 성구들에서 말씀하신 것은, 택함받은 세상을 앞서 말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확신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러한 성구들과 다른 비슷한 성구들에서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도 그것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믿기를 원하는 회개하는 자는 이 말씀을 취하여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하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시매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자비의 영원한 언약의 제안을 들었고, 마음으로 주의 제안을 받아들이나이다. 주여, 이것이 언약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보소서 내가 나를 주께 드리오니, 영원토록 모든 일에서 주를 섬기려 하나이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내게 관계된 일을 이루시리이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사람은 그리스도를 거짓 없이 믿는 신자가 될 수 있다.

### *6.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함*

은혜 언약에 이미 속한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참된 신자들이 연약하여, 자기 자신의 믿음과 유효한 부르심의 견고함에 대하여 언제든 확신할 수 있을지, 혹은 자기 칭의와 구원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을지 크게 의심하니, 이는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신자가 어떻게 견고한 근거 위에서 믿음이 강해지고, 확실한 보증과 참된 믿음의 증거로써 자기 자신의 택함과 구원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를 위하여, 다른 많은 성구 가운데 다음을 취하라.

I. 믿음의 견고한 근거를 세우기 위하여, 을 숙고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는 도움과 지침으로서 이 네 가지를 가르친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은, 비록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참으로 사도들과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이니; 그가 그들을 형제라 부르며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다.

2.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의 실제 부르심과 택함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부지런히 힘쓰면 둘 다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이것을 전제하며 말하기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를 힘쓰라 하기 때문이다.

3. 많은 겉으로 믿는 자들이 썩은 가지가 되어 배도하는 것을 볼 때 낙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잘 살펴야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가 말하기를, 더욱 힘써 유의하라 하기 때문이다.

4. 우리의 실제 부르심과 택함을 확신하는 방법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니, 그 근거를 견고히 세우고, 새로운 순종 안에서 우리 믿음의 열매를 계속 맺는 것이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것이란 그가 견고한 믿음에 대하여 말한 것(1,2,3,4절, )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5,6,7,8,9절, )을 뜻한다.

II. 이 같은 목적으로, 을 숙고하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니라. 2절 ().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 ().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로 말미암아 육신에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사도는 믿음의 근거를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이 네 가지를 가르친다.

1. 참된 신자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오직 사람들의 유일하고 온전히 충족한 중보자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한 안식을 위하여 피하고, 그리스도께로 피한 자로서 자기 육신, 곧 부패한 본성의 성향을 거슬러 힘쓰며, 그의 말씀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령의 법칙을 따르기를 힘쓰는 자이니: 이는 사도가 여기서 참된 신자로 복을 선언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죄를 거슬러 싸우는 모든 이는, 아무리 진노의 자각과 정죄의 두려움 아래서 시련을 겪을지라도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기 때문이다.

3. 비록 사도 자신도 (여기 본으로 인용된) 모든 다른 그리스도 안의 참된 신자들도 본성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 곧 행위 언약(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까지 죄와 사망을 우리에게 결박하므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 불린다) 아래 있으나;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은혜 언약(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능하게 하고 살리므로 그렇게 불린다)은, 사도와 모든 참된 신자를 행위 언약,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그와 더불어 말할 수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은혜 언약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 곧 행위 언약에서 해방시켰다.

4.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자유가 흘러나오는 근원과 첫 기초는,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맺어진 구속 언약이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를 자기 위에 취하사, 그렇지 않으면 행위 언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자가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이 교리를 사도는 이 네 가지로 지지한다: (1) 율법, 곧 행위 언약이 죄인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였으니, 이는 그것이 연약하였기 때문이다. (2) 율법, 곧 행위 언약의 이 연약함과 무능력은 율법의 잘못이 아니라, 죄의 형벌을 갚을 수도 없고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도 없는 죄 된 육신의 잘못이니(과거의 죄들이 용서되었다고 전제하고서도): 율법은(그가 말하기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였다. (3)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죄인의 의와 구원이,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심으로 이루어지니, 그 육신 안에서 죄가 정죄되고 형벌받아, 택자들을 위하여 만족을 이루사 그들이 해방되게 하신다. (4) 이로 말미암아 율법은 아무것도 잃지 아니하니, 이는 율법의 의가 이러한 방식으로 더 잘 성취되기 때문이라: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있어 우리의 이름으로 율법에 드린 완전한 능동적 순종으로; 그다음, 그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 죄로 인해 마땅한) 형벌을 우리의 이름으로 치르심으로; 그리고 끝으로, 참된 신자인 우리 안에서 그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으로, 우리가 율법에 새로운 순종을 드리려 힘쓰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그리하신다.

## 믿음을 위한 보증과 근거

이 견고한 터 위에 우리의 확신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다음 네 가지 특별한 보증과 근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 *1. 하나님의 진심 어린 초청*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초청이니, 사55:1,2,3,4,5에 담겨 있다.

1절.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청종하고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등등.

여기서(앞선 두 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루어진 우리 구속의 값진 대속물과, 그로 인하여 얻어진 풍성한 복들을 밝히신 후) 주께서는 이 장에서,

1.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의와 구원의 값없고 은혜로운 시장을 선포하심으로써, 죄와 진

노에서 참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에게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공개적으로 제안하신다: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라고 그가 말씀하신다.

2.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모든 죄인을, 죄를 씻고 진노를 끄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강같이 흐르는 은혜의 부요함을 취하러 오도록 초대하신다: 물로 나아오라, 고 그가 말씀하신다.

3. 아무도 자기 자신의 죄악됨이나 무가치함,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을 생각하며 머뭇거리지 않도록, 주께서는 특별히 그러한 이들을 부르시니: 돈 없는 자도 오라, 고 말씀하신다.

4. 그가 그의 상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만 제시된 상품, 곧 은혜 위에 은혜를 기뻐하는 것뿐이니; 마음으로 동의하고 이 은혜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리하여 하나님과 정식으로 거래와 언약을 맺으라는 것이다: 오라 돈 없이 사라(고 그가 말씀하신다), 오라 먹으라: 곧 모든 구원의 은혜를 네게 가지고 취할 것에 동의하라; 상품을 네 것으로 삼고, 소유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사용하라; 네 영적 생명과 위안이 되는 모든 것을, 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하고 누리라: 오라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고 그가 말씀하신다.

5. 주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와 만족으로 의와 생명을 구하려는, 마치 행위의 길로 의와 생명을 가지려는 경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시된 조건대로 값없는 은혜로 생명을 취하기를 얼마나 꺼려하는지 아시므로; 그러므로 주께서는 부드럽고 때에 맞는 경고로 사랑스럽게 우리를 이 굽고 불행한 길에서 불러내시어, 우리가 이 길에서 우리의 수고만을 잃을 뿐임을 깨닫게 하시니: 어찌하여 너희가(그가 말씀하시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6.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길에서 견고한 만족을, 참된 만족과 영적 즐거움의 충만함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말씀하시되: 내게 청종하여 부지런히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7. 믿음은 들음에서 나므로, 주께서는 제안의 설명을 들을 것을 요구하시며, 구원하는 믿음의 적용을 낳을 수 있고 영혼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이끌 수 있는 그 진리를 믿고 들을 것을 요구하신다: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오라, 고 말씀하신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죽은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 제안을 받아들일 때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과 언약, 곧 영구한 화목과 평화의 풀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들으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다윗(곧 예수 그리스도, 행13:34)이 구속 언약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할당하고 넘겨주는 것이 그 본질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으리니(그가 말씀하시되)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란, 곧 의와 성령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 양자 됨, 거룩하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그리고 경건과 영생에 속한 모든 것과 같은 구원의 은혜들을 뜻하신다.

8. 이 구원의 자비들이 실제로 허락됨을 확증하고 확실하게 하며,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언약이 실제적임을 우리에게 설득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는 그의 영원하시고 독생하신 아들을 네 가지로 선물하셨다:

첫째, 그를 육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예표인 다윗의 씨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러

므로 여기서, 그리고 행13:34에서, 그는 다윗, 곧 이스라엘의 참되고 영원한 왕이라 불린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큰 선물이다, 요4:10. 그리고 여기서, 내가 그를 다윗으로 삼아 혹은 다윗에게서 태어난 자로 삼아 백성에게 주었노라.

둘째, 그리스도를 백성의 증인으로 선물하셨으니, 이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구속 언약 안에서 허락된 확실하고 구원하는 자비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시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이들과 맺으신 화해 언약 안에서 그것을 확고히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과 목적에 대하여 증언하시게 하려 함이다: 내가 그를 백성의 증인으로 주었노라(주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참으로 그는 이 문제에 있어 여러 면에서 충분한 증인이시다: 1. 그는 세상이 있기 전 구속 언약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약하신 복되신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기 때문이다. 2. 중보자로서, 그는 언약의 사자이며 그것을 계시할 사명을 지니셨기 때문이다. 3. 그는 낙원에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약속하시며 그것을 계시하기 시작하셨다. 4. 그는 자기 오시기 전, 제사와 의식의 모형과 그림자 안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르게 될 큰 은택들을 제시하셨다. 5. 그는 시대를 따라 거룩한 선지자들 안에서 자기 성령으로 말씀하사 이 언약에 대하여 더욱더 많은 빛을 주셨다. 6. 그는 때가 찼을 때 친히 오사, 이 언약에 속한 모든 것과, 신자들을 그 안으로 받아들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셨으니;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본성을 신적 본성과 한 인격 안에 연합시키심으로, 부분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입으로 언약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심으로, 부분적으로는 십자가에서 구속의 값을 치르심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처음부터 오늘까지 여전히 백성을 다루사 구속받은 자들을 이 언약 안으로 이끌고 지키심으로 그리하셨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백성의 인도자로 선물하셨으니, 이는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시험을 뚫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며; 실로 그 자신 외에는 다른 누구도 자기 백성을 언약 안으로, 그리고 언약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길로 참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니: 1.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의 인도로. 2.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순종 가운데 있었던 그 자신의 삶의 본으로. 3. 그의 구속받은 자들을 그의 팔에 안으시고, 그들이 광야를 올라가는 동안 그를 의지하게 하시는 그의 능력 있는 활동으로.
넷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사령관으로 선물하셨으니, 이 직분을 그는 신실하게 수행하사, 그의 교회와 백성에게 법과 규례와 목자와 치리자와 모든 필요한 직원을 주시며; 그들 가운데 법정과 회의를 유지하사 그의 법이 순종되게 하시고; 그의 말씀과 성령과 권징으로 그의 백성의 부패를 다스리시며;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원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거래를 맺은 자는 이렇게 추론함으로써 자기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의와 구원에 목마른 죄인들에게 여기 주어진 값없는 은혜의 제안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그 모든 확실하고 구원하는 자비들과 더불어 참된 다윗이신 그리스도가 속한다:

"그런데 나는(연약한 신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의와 구원에 목마른 죄인들에게 여기 주어진 값없는 은혜의 제안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그 모든 확실하고 구원하는 자비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속한다".

### *2. 화해를 향한 간절한 청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두 번째 보증과 특별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기를 간절히 청하신다는 것이니, 이는 고후5:14,19,20,2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 아홉 가지 교리를 가르친다:

첫째, 택함받은 세상, 곧 구속받은 영혼들의 세상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된 상태에 있다는 것: 이는 화목이라는 말 자체에 전제되어 있으니, 화목, 곧 우정의 회복은 원수 되었던 자들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담의 타락 이래 지나온 모든 시대 동안,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와 택함받은 세상 사이에 우정을 이루어 오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께서(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계셨느니라.

셋째, 화해의 길은 모든 시대에 걸쳐 본질에 있어 하나요 동일하였으니, 곧 자기 죄와 하나님과의 원수 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죄 사함을 구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넷째, 복음,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목적과 취지는 세 가지라는 것: (1)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죄와 하나님과의 원수 됨을, 그리고 물러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처하게 되는 위험을 자각하게 하는 데 쓰인다. (2)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과 우정을 맺기 위하여 마련하신 길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쓰이니, 곧 사람들이 그 원수 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정의 언약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값없이 화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리라는 것이다. (3)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한 후 벗으로서 그분께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곧 그분을 거슬러 죄를 짓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함을 가르치는 데 쓰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화해의 말씀이라 불리니, 이는 그것이 우리가 화해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그것을 이룰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화해의 우정을 어떻게 지킬지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다섯째, 비록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이 복음이 이르는 모든 이에게 속하나; 그것을 권위 있게 전파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으로 부르시고 이 일을 위하여 위임을 주어 보내신 이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 이것이 사도가 19절에서 이 말로 지지하는 바이니: 그가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섯째, 복음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처신하여야 하며, 마28:19,20에 말씀 안에 세워진 그의 위임을 밀접히 따라야 하니; 그렇게 할 때 백성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는 여기서 사도가 자신의 모든 이름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사역자들은 온전한 정서의 진지함으로 백성을 대하여, 그들이 점점 더 진지하게 자기 죄와 하나님을 향한 본성적 원수 됨을 인정하게 하고; 점점 더 진실하게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동의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써 그들의 화해를 점점 더 명백히 증거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가 말할 때 지지하는 바이니: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하노라.

여덟째, 사역자들이 백성을 애정으로 대할 때, 백성은 자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상대하고 있으며, 사역자들을 통하여 화해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음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 이제 죄인의 완악한 마음을 꺾을 더 큰 격려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정을 청하신다는 사실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는 하나님께 그토록 많은 잘못을 저지른 우리가 하나님의 우정을 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시며; (오, 놀라움 중의 놀라움!) 우리에게 그분과 화해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청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청원 앞에 나서면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위임받은 사역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진노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홉째, 화해의 언약이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겸비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그토록 쉽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이시기 위하여, 사도는 우리를 구속 언약 안에 밝혀진 그 원인으로 이끄시니,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과, 중보자이시며 구속받은 자들의 보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계약 당사자로서, 구속받은 자들의 죄가 무죄하신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가 그들을 위하여 정죄받고 죽으시기로 합의되었으니, 바로 이 조건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시된 화해의 언약에 마음으로 동의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순종이 그들에게 전가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게 여겨지리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음이니, 사도가 말하기를, 이는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연약한 신자는 이 근거로부터 다음과 같이 추론함으로써 자기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청원으로(그 청원의 위임을 가진 사역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리스도를 통한 영구한 화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된 자로서 죄를 거슬러 싸우고 자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항상 섬기기로 다짐한 자는, 자기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와 영생을 받으리라는 것을, 구속받은 자들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그가 정죄받고 죽음에 처해졌던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연약한 신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청원으로, 그의 사역자들의 입을 통하여 내게 이루어진 그 청원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영구한 화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된 자로서 죄를 거슬러 싸우고 내 힘을 다하여 항상 하나님을 섬

기기로 다짐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와 영생을 받으리라는 것을, 구속받은 자들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그가 그들을 위하여 정죄받고 죽음에 처해졌던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다".

### *3. 모든 이에게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그의 명령*

그리스도를 믿는 세 번째 보증과 특별한 근거는, 복음을 듣는 모든 이에게 그가 정하신 순서대로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를 믿을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엄격하고 두려운 명령이니, 요일3:23에 담겨 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 다섯 가지 교리를 알게 한다:

1. 만일 누군가 하나님의 달콤한 초청이나,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청원에도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위엄의 주권적 권위를 상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니; 이는 그의 계명이 우리가 그를 믿을 것이라고, 이것이 그의 계명이라고 그가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2. 만일 누군가 지금까지 율법의 소홀히 여겨진 계명들을 바라보아 왔다면, 이것은 모든 죄의 치유책을 사용하도록 주어진, 율법 이후의 복음의 계명임을 생각하여야 하니; 만일 이에 불순종한다면, 뒤따를 다른 계명은 없고 오직 이것뿐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라; 이는 이것이 그의 계명이며, 그 순종이 그의 눈에 지극히 기쁘기 때문이다(22절), 그리고 그것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히11:6).

3. 연약한 신자는 명령받은 것을 행하는 것이 주제넘은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절망으로 기우는 사람은 일어나 이 달콤하고 구원하는 계명에 순종할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 강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더욱 깊이 느끼며, 이 계명의 순종 안에서 더욱더 자라야 한다; 참으로, 가장 회개하지 않고 가장 세속적이고 악한 사람조차도, 그 처지가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이 명해진 의무의 목표에서 자신을 배제하거나 다른 이에 의하여 배제되어서는 안 되니; 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하시는 이가, 그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없이는 정죄받고 잃어버린 자임을 믿으라고 명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죄와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라고 명하시며, 실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니, 이는 그를 믿을 수 있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지난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모든 이에게, 그러나 특별히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이 계명에 불순종한 죄가 있다: 이는 그의 계명이니, 곧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그가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4.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자기 구원을 견고한 터 위에 세운 것이니, 첫째로 그는 약속된 메시야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완전히 수행하기에 모든 완전함을 갖추신 이로 발견하였기 때문이라; 그는 사람이 믿는 그 그리스도이시다. 2. 그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며, 참으로 그를 통

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이를 효과적으로 구원하시는 구주를 영접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참된 구주 예수이시기 때문이다. 3.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자기 구원을 반석 위에, 곧 아버지와 동등되심이 강탈이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 세운 것이니, 그는 구원의 믿음과 영적 예배의 대상이 되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는 그의 계명이(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비록 율법의 저주에서는 벗어났으나, 율법의 명령과 순종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새로운 의무와 새로운 계명으로 그것에 매여 있으니; 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은 그 계명을 순종할 도움도 함께 내포한다: 이 그리스도의 계명에, 아버지께서도 자기 권위와 명령을 더하시니; 이는 요한이 말하기를, 이것이 그의 계명이니 곧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그가 명하셨기 때문이다. 이 계명의 첫 부분, 곧 그를 믿으라는 명령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곧 첫째 돌판에 대한 순종을 내포하니;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명의 둘째 부분은 우리 이웃(특별히 믿음의 가족)을 향한 사랑, 곧 율법의 둘째 돌판에 대한 순종을 명한다.

그러므로 연약한 신자는 이 근거로부터 이렇게 추론함으로써 스스로를 강하게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죄와 비참함의 유일한 치유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다짐한 자의 믿음은, 주제넘거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참되고 구원하는 믿음이다:

"그런데 나는(연약한 신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죄와 비참함의 유일한 치유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였고,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기로 내 마음을 다짐하였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주제넘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참되고 구원하는 믿음이다".

### *4.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큰 생명의 확신*

그리스도를 믿는 네 번째 보증과 특별한 근거는, 사람들이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경우 주어지는 생명의 큰 확신과, 만일 순종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두려운 멸망의 증서이니, 요3:35에 담겨 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유를 다 그 손에 주셨느니라.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다음 다섯 가지 교리가 제시된다:

1.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을 위한 몸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거룩함과 구원 안에서 온전케 하시겠다는 구속주요 보증이신 아들의 약속에 크게 만족하신다는 것: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그가 말하기를), 곧 그가 우리의 이름으로 중보자가 되심을, 우리 구속의 모든 점을 온전케 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가 그 일을 하겠다는 그

의 제안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를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그의 영혼이 그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시며, 그를, 이 직분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선한 뜻의 그릇으로 삼으사, 그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2.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는 (중보자로서,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은혜와 성령과 생명의 모든 부요함의 온갖 보급과,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혹은 그의 인성 안에 실체적으로 거하시는 신성의 충만함이, 혹은 나눌 수 없고 항상 계신 삼위일체의 나눌 수 없는 자충족성과 전능하심이 함의하거나, 구속의 사역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능력을 주셨으니: 아버지께서(그가 말하기를) 만유를 그 아들의 손에 주셨다는 것, 곧 그의 사역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3.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은혜 언약과 화해의 제안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는 큰 생명의 확신이 제시된다는 것: 아들을 믿는 자는(그가 말하기를) 영생이 있으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 1. 하나님의 목적과 취소할 수 없는 작정 안에서, 이는 신자가 생명을 위하여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2.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신실하신 그 분이 그리 하실 것이다. 3. 불변하는 근거 위에서 신자에게 삶과 죽음 가운데 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과 영원한 언약으로. 4. 성찬의 성례라는 큰 인침 아래에서의 서약과 확증으로, 신자가 생명의 상징과 담보를 받으러 나아올 때마다. 5. 신자들의 대언자로서 소유하고 계신, 생명의 근원과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우리 생명이 두어져 있으므로 그것이 빼앗길 수 없다는 것. 6. 영적 생명과 중생의 이미 시작된 소유로, 그리고 신자 안에 세워진,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영생의 완전한 소유의 담보로서.

4. 만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의와 영생에 관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두려운 증서가 주어지니: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리라, 곧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5. 나아가,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중으로 짊어지게 될 것을 증언하니; 한 번은, 본성적으로 태어난 반역자로서 율법, 곧 행위 언약의 저주를 견딜 것이요; 그다음으로는, 빛이 세상에 왔고 그에게 제시되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기에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이중의 진노는 그가 불신앙의 상태에 머무는 동안 그에게 움직이지 않게 붙어 고정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 고 그가 말한다.

그러므로 연약한 신자는 이 근거로부터 이렇게 추론함으로써 자기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교리를 믿고, 부분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봄으로써 그를 믿도록 능력 있게 이끌리며,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에게 매달리게 된 자는, 그를 통한 영생의 권리와 몫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요 무가치한 자이나(연약한 신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교리를 믿으며, 부분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봄으로써 그를 믿도록 능력 있게 이끌리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에게 매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통한 나의 영생의 권리와 몫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다".

### *참된 믿음의 증거들*

여기까지는 믿음의 근거를 세우는 것과, 믿기 위한 보증들에 관한 것이었다. 이제, 열매로써 참된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는 다음 네 가지가 요구된다: 1. 신자가 자기 판단에 있어, 자기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온 도덕법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 그 의무를 덜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을 견고히 확신하는 것. 2. 경건과 의의 일상적 실천과 훈련 안에서 자라기를 힘쓰는 것. 3. 그의 새로운 순종의 흐름이 올바른 물길,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선한 양심을 거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의 모든 의무로 흘러가는 것. 4.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은혜가 흘러나와야 할 그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가까운 교제를 유지하는 것.

### *1. 신자가 도덕법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확신하는 것*

첫 번째를 위하여, 곧 신자가 도덕법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자기 판단으로 확신하기 위하여, 다른 많은 본문 가운데 마5:16을 취하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 주께서는,

1.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신자들에게, 선한 행위로써 사람 앞에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고 명하신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그가 말씀하시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2. 비록 그들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선한 행위를 지켜보는 이들이 회심하거나 덕을 세울 수 있음을 보이심으로써 그들을 그리하도록 이끄시니;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들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3. 그들의 새로운 순종을 위한 다른 규칙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설명된 도덕법만을 주신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

가 말씀하신다).

4.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와 율법의 저주에서의 해방에 관한 교리는, 마치 그것이 신자들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와 율법의 권위에 복종할 의무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처럼, 사람들의 부패한 판단에 의하여 쉽게 오해된다는 것; 그리고 이 오류는 실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니, 그는 자기 제자들 중 누구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이는 그것이 신자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다음 구원하시려는 그의 오심의 목적에 그토록 상반되기 때문이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가 말씀하신다).

5. 복음과 은혜 언약의 목적은 사람들이 도덕법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임을 가르치신다: 내가 왔노라 (그가 말씀하시되)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하게 하려고.

6. 도덕법의 의무는, 모든 점에서, 모든 거룩한 의무에 대하여, 영원하며, 세상 끝까지 지속된다는 것, 곧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7.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경을 돌보셨듯이, 세상 끝까지 그것을 돌보사, 그 본질에서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 본문은 그렇게 말한다, 18절.

8. 도덕법을 어기고 그 범법을 죄가 아닌 것처럼 변호하는 것이 사람들을 하늘에서 배제하며, 정당하게도 참된 교회의 교제에서도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순종하고 본과 조언과 교리로써 각자의 소명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이며 하나님께 크게 존중받고 참된 교회에게도 크게 존중받기에 합당함을 증명한다는 것, 19절.

9.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하여야 한다는 것; 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비록 율법의 여러 의무를 지키는 데 힘썼으나, 그 실천을 덜 정죄받게 하려고 그 설명을 짧게 줄였으며; 의무의 외적 부분만 연구하고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은 소홀히 하였고; 몇 가지 더 사소한 의무는 조심스럽게 지켰으나 심판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하였으니: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는 데 몰두하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보다 더하여야 하니; 그는 율법의 영적 의미의 온전한 범위를 인정하고, 모든 계명을 존중하며,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기를 힘써야 하고, 자기가 행하였거나 앞으로 행할 봉사에 무게를 두지 아니하며, 오직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인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입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본문은 그렇게 말한다: 너희 의가 아니면, 등등.

### *2. 신자가 경건과 의의 규칙을 실천함*

참된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두 번째는, 신자가 경건과 의의 규칙을 실천하기에 힘쓰고, 그 일상적 실천 안에서 자라는 것이니, 벧후1:5에 따른 것이다.

5절.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절.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절.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안에서,

1. 사도는 신자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소중한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믿음에 다른 일곱 자매 은혜를 더하기를 힘쓰라고 가르친다. 첫째는 덕이니, 곧 모든 도덕적 의무의 능동적 실행과 실천이라, 이는 믿음이 게으르지 않고 행위로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지식이니, 믿어야 할 진리에 대한 정보를 믿음에 제공하고, 행하여야 할 의무의 지침과 그것을 신중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덕에 제공하는 데 쓰인다. 셋째는 절제이니, 모든 즐거운 것들의 사용을 절제하여, 사람이 그것들로 인하여 방해받거나 부름받은 어떤 의무에도 무능해지지 않게 하는 데 쓰인다. 넷째는 인내이니, 어떤 어려움이나 불쾌한 일을 만날 때 사람의 정서를 조절하는 데 쓰여, 선을 행하는 데 요구되는 수고로 지치지 않게 하고, 주께서 그를 징계하실 때 낙담하지 않게 하며, 그가 십자가를 만날 때 원망하지 않게 한다. 다섯째는 경건이니, 그를 종교의 모든 실천,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 안에 머물게 하여, 그로써 그가 이행하여야 할 다른 모든 의무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한다. 여섯째는 형제 우애이니, 믿음의 온 가족과, 그것이 보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유지한다. 일곱째는 사랑이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모든 경우에, 어떤 사람이든 그들에게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유지한다.

2. 비록 경건한 이들 안에도 많은 부패와 연약함이 있음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사도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따라 올바르게 힘쓰고 최선을 다하여 이 모든 은혜를 서로 연결시키고, 그 실천의 정도 안에서 자라기를 원한다: 모든 힘씀을 다하여(그가 말하기를), 너희 믿음에 더하라, 등등.

3. 그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이 지침에 순종함으로 유익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자기 자신의 믿음의 견고함을 유익하게 증명하리라는 것을 확신시키니; 그리고 만일 이 은혜들이 그들에게 부족하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눈먼 자로 밝혀지리라는 것이다, 9절.

### *3. 율법에 대한 순종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올바른 물길을 통해 흐름*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세 번째 요건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 올바른 물길,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등을 통하여 흐르는 것이니, 딤전1:5에서 지지된다.

이제 계명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여기서 사도는 다음 일곱 가지 교리를 가르친다:

1. 율법에 대한 순종은 사랑에서 나와야 하며, 사랑은 청결한 마음에서, 청결한 마음은 선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선한 행위의 유일한 올바른 물길이다: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라, 등등.

2.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순종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니, 이는 모든 위반으로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는 죄인들이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율법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이라, 등등.

3. 백성에게 전파된 율법의 참된 목적은,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땅한 정죄를 보고 거

짓 없이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을 흘러나오게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

4. 어떤 사람도 율법에 순종하기 위한 사랑에 이를 수 없으니, 다만 그의 양심이 믿음으로 안정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되기를 구하는 정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 이는 율법의 목적이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요, 거짓 없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5. 거짓 믿음은 율법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가며, 그러므로 그에게 갈 용무가 없으나; 거짓 없는 믿음은 율법을 고려하고, 율법 위반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할 때마다, 의를 위한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께로 피난처를 구하러 도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는 율법의 목적이 거짓 없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6. 사랑의 열매가 특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모든 죄와 부정에 대한 미움과, 모든 거룩함을 보편적으로 따르려는 확고한 목적으로 이끌려야 한다는 것: 이는 율법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7. 거짓 없는 믿음은 양심을 선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사람이 율법에 사랑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으로 정의를 잠잠케 함이 보일 때, 양심도 잠잠해지고, 마음이 죄에 대한 사랑을 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자비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인하여 그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려 힘쓰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니, 이로써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사람에게서 더 많은 순종을 얻어내기 때문이다.

### *4. 모든 은혜와 선행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가까운 교제를 유지함*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네 번째 요건은, 모든 은혜와 모든 선행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가까운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니, 요15:5에 말씀된 바와 같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의 유사성은 우리에게 다음을 가르친다

1. 우리는 본성적으로 열매 없는 가시나무이니, 그리스도께로 나아옴으로 변화받기까지 그러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은혜의 모든 생명과 수액을 지니신 그 고귀한 포도나무이시니, 그에게 나아오는 모든 이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영과 생명을 전달하실 수 있다는 것: 나는 포도나무요(그가 말씀하시되) 너희는 가지라.

2.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이 그와 그토록 연합되어 어떤 때에도 불신앙으로 인하여 분리되지 않기를 기뻐하시며; 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자기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 안에 거하는, 서로의 거함이 있기를 기뻐하시니; 이는 그가 그들을 하나로 결합시키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마치 나눌 수 없는 것들처럼.

3.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작은 선행도 행할 수 없다는 것; 참으로,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얻는 만큼을 제외하고는, 그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 선함의 관점에서 악하고 무효라는 것: 이는 나를 떠나서는(그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이 상호 내주하심이 선 안에서 계속하고 항상 풍성하게 되는 확실한 근원이요 원인이라는 것: 이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그가 말씀하시되)가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세 가지를 전제하니: 1.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리를 들었다는 것, 곧 율법으로 잃어버린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 2.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제안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3. 그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요1:12, 그리고 그의 신비한 몸에 접붙여져, 그가 자기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의와 생명의 처소인 그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다시 다른 세 가지를 함의하니, 1.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간구에 있어서, 그리고 그를 위한 봉사의 어떤 부분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것. 2. 그의 충족하심으로 만족하며, 어떤 경우에도 의나 생명이나 자원을 우리 자신의 가치나 어떤 피조물의 가치에서 구하러 그를 떠나지 않는 것. 3. 그를 믿는 우리 믿음의 견고함과, 그를 사용하고 그에게 의지하는 우리의 견고함과, 그 안에서의 우리의 만족과 그에게 매달림의 견고함이니, 어떤 유혹도, 사탄이나 세상의 어떤 시험도, 어떤 공포나 어려움도, 우리의 영을 그에게 견고히 매달리는 것에서, 혹은 그의 진리를 항상 인정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서 떼어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며,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신성과 인성의 실체적이고 인격적인 연합으로 인하여 신성의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신다.

그러므로 깨어 있는 모든 신자는, 믿음과 순종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추론하여야 한다:

"율법을 거스른 죄의 죄책과 더러움에서 자기 양심과 정서를 깨끗하게 하고, 사랑 안에서 율법에 순종할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용하는 자는, 자기 안에 참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깨어 있는 모든 신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여 율법을 거스른 죄의 죄책과 더러움에서 내 양심과 정서를 깨끗하게 하고, 사랑 안에서 율법에 순종할 능력을 갖춘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참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잠자고 게으른 신자도 자기 자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렇게 추론하여야 한다:

"참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스스로를 속이고 멸망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런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여 율법을 거스른 죄의 죄책과 더러움에서 내 양심과 정서를 깨끗하게 하고, 사랑 안에서 율법에 순종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내 안에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를 속이고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

### *5. 이 증거들로써 믿음과 순종 안에서 신자를 강하게 함*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께 생명으로 택함받고 구속받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진 사람의 의심할 수 없는 증거로서 이것을 지적하셨으니, 곧 그가 그에게 온다는 것, 다시 말해 언약에 가까이 나아와 그와 교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라, 요6:37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죄 사함과 삶의 개선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추론하고 앞선 모든 전제로부터 이렇게 추론하여, 자기 양심이 깨어나게 하라:

"율법으로도 복음으로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나아와 죄 사함과 삶의 개선을 위하여 날마다 그를 사용할 만큼 확신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하는 믿음의 증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 상태에 머무는 동안에는 자기 택함의 어떤 낌새조차 없다:

"그런데 나는(모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율법으로도 복음으로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나아와 죄 사함과 삶의 개선을 위하여 날마다 그를 사용할 만큼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하는 믿음의 어떤 증거도 원할 뿐 아니라, 이 상태에 머무는 동안에는 나의 택함의 어떤 낌새조차 원한다".

끝.

© 2026 Westminster 1647 :: https://westminster1647.com/ko/correo